

탈비행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

박현진** · 김동민***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탈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비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에 의해 제시된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한 후, 새로운 정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참여자들과 부모는 상호 노력을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함으로써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가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봄'과 '부모의 지원'은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참여자들의 실천적 탈비행 전환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핵심범주는 '상호 노력을 통한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으로 나타났다. 탈비행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의 특징은 부모-자녀관계가 상호작용적일 때 변화의 질이 향상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비행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할수록 변화 속도가 빠르고, 상호신뢰가 깊어지며,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꾸준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주제어 : 탈비행 청소년, 부모-자녀관계 변화, 근거이론

* 본 논문은 박현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요약한 것임.

**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 론

그동안 비행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그 원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예컨대, 높은 공격적 성향, 낮은 학업성취,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가정불화, 비행을 일삼는 또래집단에 참여, 빈곤한 지역에 사는 것 등이 지적되어 왔다(Smokowski, Mann, Reynolds, & Fraser, 2004).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몇몇 청소년들은 더욱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비행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는 힘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강석기, 백옥현, 2006; 신현숙, 2003; 윤선아, 안귀여루, 박영숙, 2008).

특히, 비행을 저지르고 취약한 환경적 조건하에 있지만 더 이상 비행을 하지 않는 탈비행 청소년들의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탈비행(desistance from delinquency)이란 비행의 영원한 중단이라기보다는 비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써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하는 점진적인 발달 과정을 뜻한다(이희연, 2005; Bottoms, Shapland, Costello, Holmes, & Muir, 2004; Byrne & Trew, 2008).

지금까지 탈비행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탈비행에 기여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연구들이다. 주로 탈비행에 성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탈비행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한 연구들(예; 유성경, 2000; Born, Chevalier, & Humbelt, 1997; Conner & Davidson, 2003; Hamill, 2003)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에서 나타난 탈비행의 기여요인들은 높은 자기효능감,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 안정된 애착관계, 성취경험, 긍정적 삶의 자세, 이웃의 도움 등이었다. 둘째는 탈비행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탈비행 과정에 도움을 주는가를 탐색한 연구들(예; 박한샘, 오익수, 1998; 손순용, 2008; 이재규, 2002; 이희연, 2005)이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탈비행 관련 요인들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탈비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행동적 변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적응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 또한 탈비행과 관련된 요인들은 상담 현장에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어, 상담자가 비행청소년의 탈비행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탈비행에 대한 두 번째 흐름의 연구들은 탈비행과 관련된 요인들만 밝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탈비행 과정에 기여하는지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들 탈비행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청소년들이 탈비행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탈비행에 성공한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부모와 친밀해지고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가’했다고 지각했으며(이희연, 2005), ‘가족들과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유성경, 2000; 유성경, 외, 1999)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들의 탈비행에 중요한 기여를 했거나 탈비행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손순용(2008)의 연구에서, 가족과 부모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비교적 순탄하게 재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탈비행으로의 전환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자녀관계가 탈비행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탈비행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 혹은 부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즉, 탈비행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지각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과정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비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관계 변화와 경험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인 장기적 관계(Lollis & Kuczynski, 1997)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부모와의 애착(박정녀, 최해림, 2005; Muris, Meesters, Morren, & Moorman, 2004), 부모의 양육태도(박경일, 이상주, 권기형, 2004; Brennan, Hall, Bor, Najman, & Williams, 2003), 부모와의 의사소통(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5), 부모의 모니터링(Branstetter, 2005),

친밀감(McGue, Elkins, Walden, & Iacono, 2005), 부모의 지지(Branstetter, 2005)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필요조건을 확인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거나 친밀감을 가지는 것 등은 부모-자녀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불안정하게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보다 자존감 및 자기 표현력이 높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수줍음을 덜 타고(김수진, 2001), 사회적 유능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경험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유연한 적응력을 보이며 자신의 능력을 다르게 지각하고, 비행에 벗어나기 위한 자기 통제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신뢰로운 부모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또래와 의사소통 시 유연성을 발휘하고 어머니와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높은 딸은 물질남용을 덜 하며(Schinke, Noia, Schwinn, & Cole, 2006), 학업적 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ng, Phinney, & Dennis, 2006). 이처럼 개방적이고 신뢰로운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깊은 신뢰의 형성을 돕는다.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지 않고,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비록 문제 행동으로 비행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 신뢰로운 의사소통, 가족들의 유대감을 경험했다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탈비행으로의 전환과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는 더 용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부모-자녀관계 지각의 변화와 탈비행 결심

청소년들이 비행에 한번 빠지면 쉽게 탈비행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이 몇 년 동안 경험했던 비행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결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심의 동기를 청소년들의 부모관계에 대한 지각의 변화와 관련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에 대한 지각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

은 부모와 유대관계를 적절히 형성하지 못해 부정적인 관계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와 반대의 경우라면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먼저, 많은 선행 연구들은 부모관계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지속적인 비행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하였다(손병덕, 황혜원, 2006; Martsch, 2005).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을 비교한 결과,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이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손병덕, 황혜원, 2006).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거나(Martsch, 2005), 부모와 친밀감이 약하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쉽고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Luthar & Becker, 2002). 어머니의 거부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내현화 문제행동, 전반적 부정적 정서 증상의 수준이 높았고, 긍정적 적응기술 수준도 낮았다(안명희, 최해림, 2004).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청소년의 탈비행 연구들(손순용, 2008; 유성경 외, 1999; 이희연, 2005)은 청소년들이 탈비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성경 외(1999) 연구에서는 엄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눈물과 칭찬 격려, 상담을 통해 엄마를 이해하는 계기가 탈비행으로의 결심을 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연(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감별소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면회 와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과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잔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탈비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손순용(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눈물을 보거나 부모가 자신을 빼내기 위해 경찰에게 빌고, 빚을 내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가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비는 등 청소년들이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부모의 행동들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비행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탈비행을 결심하기까지 부모-자녀관계 경험과 그에 따른 청소년의 지각이 선행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

계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미안함, 후회, 염려, 이해 등과 같은 지각을 거쳐 궁극적으로 탈 비행 결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 탈 비행을 결심하기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 무엇이며,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각의 변화에 대한 속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부모-자녀관계와 탈 비행 행동

탈 비행을 결심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적응생활을 경험함으로써 탈 비행을 실천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이르게 된다(이희연, 2005). 청소년들이 탈 비행을 실천하는 행동으로는 비행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않으며, 학교에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외박을 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더 이상 이전의 생활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확신(유성경 외, 1999)과 다양한 성취경험과 사회적 소속감,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다(이희연, 2005). 또 다른 연구(손순용, 2008)에서는 탈 비행을 결심했지만 잘 실천되지 못할 때, 자신의 비행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부모를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탈 비행 행동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탈 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실천 행동과 그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방법 중에서도 근거이론 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 접근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참여자가 실제적 경험과정에

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지 밝혀내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Schreiber & Stern, 2001). 근거이론 접근이라고 명명된 이유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복잡한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이론을 창출하기 때문이다(Fassinger, 2005). 근거이론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실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론을 발견하거나 형성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의 분석과정은 Strauss와 Cobin(1990, 1998)이 제시한 3가지의 코딩방법에 의한다. 이것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코딩은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며, 축코딩은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범주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발견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2.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U시에 소재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추천을 받은 청소년 25명 중 검사결과와 기초면담 자료를 토대로 선정된 13명이다(표 1).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연령은 17세~19세 사이였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2명, 여자 청소년이 1명으로, 남자 청소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행을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경이었으며,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는 한 번에서 네 번까지 다양한 횟수를 보이고 있었다. 보호관찰을 받는 이유로는 오토바이 절도, 폭행, 차량 절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면담)

본 연구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2008년 9월에서 2009년 3월까지 심층적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에게 지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허용하였다. 면담장소는 U시 보호관찰소의 허락

하에 보호관찰소 상담실이나 U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면담시간은 청소년 한사람 당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전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참여자들의 연구과정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사용될 것이며, 면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면담내용은 연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연구자가 약속하였다. 가명은 참여자들이 직접 짓도록 허용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 또한 구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면담 전 면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녹음 내용은 축어록으로 작성되었고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이름 (가명)	성별	연령	학력	비행시 작시기	보호관찰 이유(횟수)	부모관련 사항	부모관계/적응상황
강민성	남	19	고1자퇴	중2	오토바이 절도(3)	- 친모사망 - 아버지와 거주(자영업)	- 검정고시 준비함/조기 귀가 - 아버지가 자주 편지를 보내 사랑한 다고 표현함 - 아버지의 조언이 고맙게 들림
이동민	남	19	고1자퇴	중3	폭행(1)	- 아버지 (회사원) - 어머니(식당)	- 아르바이트 함 - 부모와 대화시간이 길어짐 - 가출하지 않음
김민호	남	19	고1자퇴	중2	차량절도(2)	- 아버지 (회사원) - 어머니 (백화점)	- 검정고시 학원을 다님 -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음 - 부모가 일상적인 일을 챙기고 대화 도 많이함
김동수	남	18	고2자퇴	중2	오토바이 절도(1)	- 아버지와 새엄마와 삼 - 아버지 (회사원)	- 조기귀가/ 부모와 대화시도 - 가족과 외식도 자주함 -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반성을 함
김성민	남	17	고1자퇴	중2	오토바이 절도(1)	- 부모이혼 - 어머니와 거주(자영업)	- 미용공부를 계획 중 - 외박하지 않음 - 어머니를 위해 비행을 하지 않겠다 고 다짐함
석환민	남	17	고1자퇴	중3	폭행(1)	- 부모(자영업)	- 검정고시 학원 다님 - 부모 일을 도와줌 - 용돈을 받으면 저축함
김영구	남	19	고1자퇴	중3	폭행, 절도(3)	- 아버지 (회사원) - 어머니(술집)	- 검정고시 학원 다님 - 시간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함 - 집안일을 도와줌

이름 (가명)	성별	연령	학력	비행시 작시기	보호관찰 이유(횟수)	부모관련 사항	부모관계/적응상황
조민경	여	17	고1자퇴	중3	폭행(1)	- 아버지 (회사원) - 어머니(주부)	- 부모의 관심이 많아짐 - 교회를 열심히 다님 - 힘들 때 가족이 위로해 줌
조승우	남	17	고1자퇴	중3	오토바이 절도(1)	- 아버지제시지 않(이혼) - 어머니 (식당일)	- 어머니의 생일선물을 챙김 - 어머니의 격려와 조언 고마움 - 보호관찰교육을 잘 받고 있음 - 집안일을 도와줌
김복남	남	18	고2자퇴	중3	오토바이 절도(1)	- 아버지 (일용직) - 어머니 (회사원)	- 나쁜 친구와 만나지 않음 - 부모와 대화시도/일상적 대화를 자 주함 - 부모가 공부 가르쳐 줌
박성진	남	17	고1자퇴	중2	오토바이 절도(1)	- 아버지 (회사원) - 어머니(식당)	- 조기귀가 함 - 가출친구 설득해서 돌려보냄 - 부모가 고마운 존재라고 느낌
이준상	남	17	고1자퇴	중3	폭행(1)	- 친모사망 - 아버지와 거주(일용직)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육받고 봉사 활동을 함 - 아버지와 다툼을 감 - 아버지의 조언/칭찬
배정남	남	18	고1자퇴	중3	오토바이 절도(4)	- 아버지 (회사원) - 어머니 (회사원)	- 부모와 문자를 주고받음 - 외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학원에 다님

3) 자료분석

자료 분석 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되었다.

4) 연구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신뢰로운 질적 연구 수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탈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에 대해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 U시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연구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의뢰하여 양적 척도와 자유 기술 질문,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과 비슷한 비행 경험이 있는 A시 보호관찰소 관찰 대

상자 8명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과연 이 연구결과가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셋째, 연구의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이 있는 교육학 박사 1인, 근거이론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교육학 박사 1인,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5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는 상담심리사 1급 및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심리학 박사 1인,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10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고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박사수료생 1인에게 자문과 논의를 계속 하면서 연구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 시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최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개방코딩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그 개념들을 범주화시켰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코딩에서는 최종적으로 95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범주와 하위범주를 추상화시킨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2개의 범주로는, 부모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한 후 정서 변화, 부모의 수용과 행동 변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결심, 부모에 대한 태도 변화, 부모와 친밀한 관계 경험, 상호 신뢰와 이해 형성, 상호 의사소통 노력, 부모가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봄, 부모의 지원, 비행 극복을 위한 행동 변화 노력,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 미래를 위한 준비 행동 실천으로 나타났다.

<표 2> 개방코딩 : 자료의 범주화

개 념	하위범주	범주	
● 부모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람 ● 부모가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쓰러움 ●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음 ●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고 미안함	부모가 우는 모습에 마음이 동요됨	부모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 한 후 정서의 변화	인과적 조건
● 아버지가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를 해서 미안함 ● 아버지가 합의해 달라고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미안함	아버지가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함		
● 부모가 모든 걸 용서해 줌 ● 부모가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위로해 줌 ● 부모가 한번쯤 그럴 수 있다고 용서해 줌 ● 부모가 잘못을 해도 야단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 줌	부모의 용서	부모의 수용과 행동변화	맥락적 조건
● 아버지가 남자답게 기를 펴라고 이야기 해 줌 ● 어머니가 칭찬을 많이 해 줌 ● 어머니가 감싸주면서 토닥거림 ● 부모가 이해를 해 줌	부모의 격려		
● 부모 사이가 좋아짐 ● 아버지가 더 이상 술도 안 먹고 때리지도 않음 ● 부모가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 함	부모의 행동 변화		
● 부모에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함 ● 다시는 이렇게 않겠다고 무릎을 꿇고 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결심	
●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바르게 살기로 다짐을 함 ● 어머니를 경찰서에 불러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 함 ● 부모에게 착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함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결심 함		
● 아버지가 들어오면 인사를 함 ● 용돈을 저금해서 어머니 생신선물 사줌 ●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고 말을 잘 들음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	부모에 대한 태도변화	
● 부모의 건강이 염려됨 ● 부모의 나이가 안쓰러움 ● 부모가 힘들까 봐 걱정 됨	부모에 대한 염려		
● 부모가 하는 일을 도와 줌 ● 부모가 안 게실 때 집안일을 도와 줌	부모를 도와 줌		

개 념	하위범주	범주	
● 어머니와 영화도 보러가고 친구처럼 대함 ● 어머니와 요리를 같이 함 ● 아버지와 낚시하러 같이 감 ●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짐 ● 아버지와 목욕탕을 감 ● 부모와 장난을 침 ● 부모에게 애교를 부림	부모와 시간을 보냄	부모와 친밀한 관계 경험	현상
● 아버지를 보면 반가움 ● 부모가 그냥 좋음 ●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음 ●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낌	부모에게 친밀감이 생김		
● 부모는 고마운 존재라고 느낌 ●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짐 ● 아버지가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느낌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김	상호 신뢰와 이해 형성	작용/ 상호 작용 전략
● 부모가 믿어 줌	부모가 믿어줌		
● 부모가 나의 입장이 되어 이해해 주려고 함 ● 서로 이해하고 입장을 생각하게 됨	서로의 입장을 생각함		
● 부모와 고민이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눔 ● 먼저 부모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함 ● 어머니와 사소한 이야기도 많이 함 ●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음	부모와 대화를 나눔		
● 부모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함 ● 부모가 편지로써 마음을 전달함 ● 어머니가 제대로 못해줬다고 미안하다고 함	부모가 마음을 전달함	상호 의사소통 노력	
● 부모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 줌	부모의 조언		
●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 줌 ●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줌	부모가 의견/ 요구를 들어 줌		
● 부모의 이야기가 잔소리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됨 ● 부모의 잔소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됨	부모의 말이 고맙게 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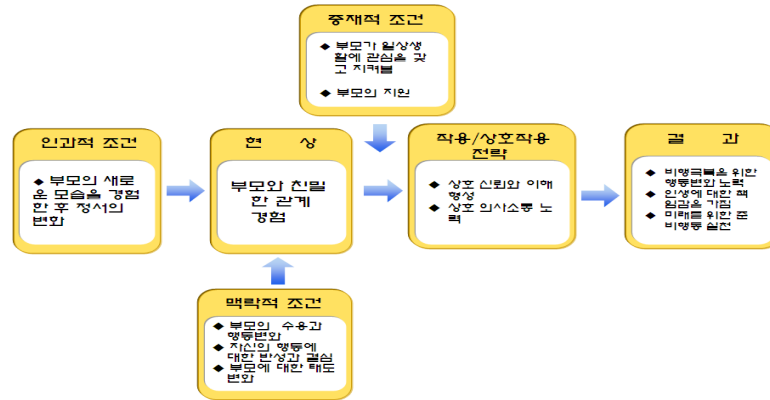
개 념	하위범주	범주	
● 부모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가져 줌 ● 부모가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줌 ● 어머니가 여자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줌 ● 부모가 밥을 챙겨 줌	부모의 일상적 관심이 많아짐	부모가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봄	중재적 조건
● 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함 ● 부모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자주 함	부모가 연락을 자주 함		
● 자신을 공부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일을 하기 시작함 ● 아버지가 회사를 많이 빠짐	부모의 희생	부모의 지원	
● 부모가 보호관찰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부모가 공부를 가르쳐 줌 ● 늦으면 아버지가 데리러 옴 ● 부모가 용돈을 줌	부모가 도와줌		
● 사고치지 않으려고 부모가 준 편지의 내용을 생각함 ● 보호관찰 교육을 잘 받고 있음 ● 부모에게 사고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함	문제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함	비행극복을 위한 행동변화 노력	결과
● 외박을 하지 않음 ● 귀가시간을 정해 놓고 들어 옴 ● 늦을 것 같으면 부모에게 전화를 함	귀가시간 약속을 지킴		
●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음 ● 나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	나쁜 친구와 만나지 않음		
● 담배를 끊음 ● 나쁜 짓을 하려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 줌	새로운 행동의 시작		
●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김 ●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함 ●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함 ● 스스로 알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 도전할 일이 생겨서 해 보려고 생각 함 ●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함	새로운 마음을 가짐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	결과
● 감정고시를 준비 함 ● 대학가기 위해 공부함 ● 복학해서 학교를 졸업할 계획임 ● 나쁜 짓 하지 않고 공부해보자고 마음먹음	학업에 대한 관심	미래를 위한 준비 행동 실천	
● 자격증을 딸 계획을 세움 ●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계획임 ● 독학으로 취업준비를 함 ● 독립을 위해 스스로 용돈을 벌기 시작함	미래 대비를 위한 계획을 세움		

2. 축코딩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된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써,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힌다. ‘축’은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축이라고 명명되었다. 축코딩에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category analysis)과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이 있다.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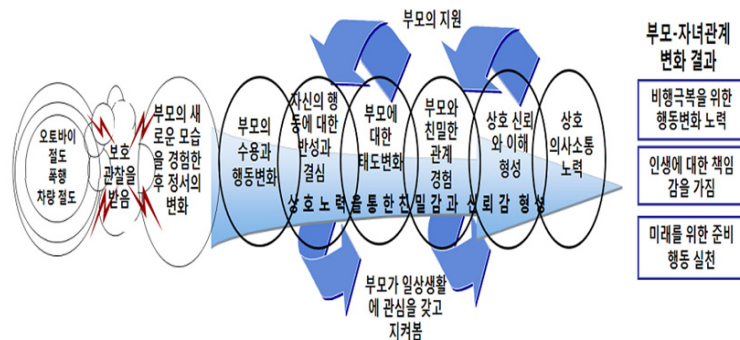
패러다임이란 각 범주들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어 조직화하는 도식으로써(Strauss & Cobin, 1998), 패러다임 모형에는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과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한 후 정서의 변화’로 나타났다. 현상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 경험’으로 나타났다. 어떤 현상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인 맥락적 조건은 ‘부모의 수용과 행동변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결심’, ‘부모에 대한 태도 변화’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조건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봄’, ‘부모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 형성’, ‘상호 의사소통 노력’이었으며,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온 결과는 ‘비행 극복을 위한 행동변화 노력’,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 ‘미래를 위한 준비 행동 실천’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패러다임 모형

2) 과정분석

과정(process)은 한 가지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인 진행이다(Strauss & Cobin, 1998).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정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정분석을 바탕으로, 탈비행 과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 경험들, 부모-자녀관계 전반에 미치는 조건들, 부모-자녀관계 변화로 나타나는 결과와 선택코딩 중 핵심범주를 제시하였다.



[그림 2]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

(1) 부모-자녀관계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부모-자녀관계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에서 참여자들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비행의 길로 빠져들었다. 문제행동들은 참여자들의 비행 경험을 누적되게 만들었고, 결국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전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관계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시발점은 참여자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로 인한 마음의 동요였다. 구치소나 감별소(소년분류심사원)에 있으면서 참여자들은 그동안 무심코 저질렀던 행동들이 후회스럽고, 앞으로 다가올 재판 결과가 두려웠다. 지금까지 부모는 간섭하는 존재, 무서운 존재,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구치소 혹은 감별소에서 만난 부모는 자신을 위해 눈물로써 근심을 표현하고 있는 존재였고, 참여자들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면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지켜 본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분류심사위원회에 2주 동안 있을 때요. 첫날 딱 왔을 때, 느꼈어요. 이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가 이쪽 문에서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분 다 우셨어요... 내가 사고 치면 우시고 슬퍼하고 고민도 많아지고 그렇구나. 안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울지 말라고 막 하고... 이제 안 그런다고 막 그랬어요. (중략)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실망시킨거요... 아빠는 실망감이 엄청 컸을 거 같아요. 사고치고 되게 미안하지요... 실망시켜드렸으니까...” (박성진)

“아빠는 또 죄송하다고... 똑바로 교육시켜서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피해자 부모한테 빌었어요. 음...미안하죠.” (김동수)

(2)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

본 연구의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과 부모는 상호 노력을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함으로써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섯 단계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1 단계 : 부모의 수용과 행동 변화

부모-자녀관계 변화는 부모의 수용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시작되었다. 부모의 수용과 행동 변화 과정은 재판을 받기 위해 간혀 있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부모가 참여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격려하며, 이해하고, 부모 스스로 행동변화를 보임으로써 나타났다. 부모의 수용과 행동 변화 노력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관계 변화로 나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제가 사고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다독겨려주시고, 괜찮다 남자는 한번 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사고 친 것 별거 아니라고 용서해주셨어요. 정말 이럴 때.. 눈물이 났죠.” (이동민)

“엄마 아빠랑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엄마 아빠 못 보겠는거예요 진짜... 미안해서. (중략) 경찰서를 나오는데.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엄마아빠는 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조민정)

2단계 :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결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결심 단계는 참여자들이 부모의 이해와 행동 변화를 경험한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부모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결심 과정에서는 부모의 수용과 행동 변화에 힘입어, 참여자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다짐함으로써 변화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이나 경찰서에 와서 힘들어 하는 모습 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이상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부모님한테도 잘 해드릴려고요. 사고 안치고 착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번 더 사고 치면 진짜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거다라는 생각 들고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환민)

“내가 이러면 안되겠구나.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그래서 딱 무릎 꿇고 말했어요. 이제는 다시 안그러겠다고... 맨날 사고 치니까 부모님은 정말 답답하겠지요.” (이동민)

3단계 : 부모에 대한 태도 변화

부모에 대한 태도 변화 단계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결심을 한 후 부모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부모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부모에 대한 염려는 부모의 일을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에게 상호영향을 주는 양방향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들도 행동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부모-자녀관계 변화는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한층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아빠가 어디 갔다 오면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인사는 주로 식사하셨나 뭐 이런 거.. 친하게....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좋아하시죠.” (김민호)

“예전에는 무조건 말만 하면 짜증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사고도 안 치고, 말도 잘 듣고, 엄마한테 화도 안내고 그래요. 이제는 제가 저주고 맨 날, 그래요.” (김성민)

4단계 : 부모와 친밀한 관계 경험

부모와 친밀한 관계 경험은 부모의 수용과 행동 변화, 그리고 참여자들이 행동을 반성하고 탈비행 결심을 하면서 부모와 참여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참여자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들의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부모의 이해와 함께 자신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빠가 저랑은 약간 친구 같다고 해야되나? 아빠가.. 뭐.. 저는 아빠한테 잘 존댓말을 안해요. 아빠한테 막 어디 놀러가자... 놀러가자 하면 아, 귀찮다 하시면서도 아빠도 낚시가 좋아하셔서, 낚시도 같이 가고...” (이준상)

“옛날에는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있는 게 부러웠단 말이에요...요즘에 그런 거 안부러워요. 거의 다 같이 있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좋구요...아빠랑 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김민호)

5단계 : 상호 신뢰와 이해 형성

상호 신뢰와 이해 형성 과정은 친밀한 관계 경험 후, 참여자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부모 또한 참여자들을 믿어주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와 참여자 모두 친밀한 관계 경험을 통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거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경험을 새롭게 한 거거든요.” (김민호)

“옛날에 엄마하고 아빠는 저를 이해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한 번 이해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석환민)

6단계 : 상호 의사소통 노력

상호 의사소통 노력 과정은 부모와 참여자들이 신뢰와 이해 형성을 통해 대화와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부모는 담아 두었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한층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다. 또한 부모는 참여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참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 줌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부모의 말이 고맙게 들리게 만들었다.

“그 전에는 말을 잘 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할 말은 다 하고 들을 건 다 듣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에요.” (김복남)

“옛날에는 엄마가 무슨 이야기 하면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하면 끝까지 다 듣고, 귀 기울여서 듣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얘기도 다 들어보고, 잔소리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승우)

(3)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 전반에 미치는 조건

‘부모가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봄’과 ‘부모의 지원’은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조건은 부모-자녀관계 변화 여

첫 단계 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각 과정의 관계 변화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① 부모가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봄

부모는 참여자들이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주 연락을 하였다. 부모가 참여자들의 일상생활 패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챙겼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검정고시 학원을 가려고 할 때... 사실 관심을 안 가져 주실 수 있는데 부모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 학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김민호)

“밥 먹었냐 물어보고 아르바이트 가서 피곤했냐고 물어보고... 밥 안먹었다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자 이려고...” (배정남)

② 부모의 지원

부모는 관심을 갖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부모는 참여자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학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를 위해 경찰서나 보호관찰소를 왔다 갔다 하느라 회사를 빠지는 경우도 생겼다. 아울러 참여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참여자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데리러 가서 참여자들이 비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모의 지원은 탈비행으로의 전환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아무래도 저 때문에 회사도 못가고 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것저것 저 때문에 좀 걱정을 해야 하니까요.” (김동수)

“전에는 차 안태워주셨는데, 이제 늦으면 아빠가 데리러 오시고 신경을 써 주세요.” (이준상)

(4) 부모-자녀관계 변화로 나타난 결과

부모-자녀관계 변화의 결과는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참여자들의 실천적 탈비행 전환을 말한다. 참여자들은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음을 알기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비행극복을 위한 행동 변화 노력을 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① 비행극복을 위한 행동변화 노력

부모-자녀관계 변화의 결과는 참여자들이 비행극복을 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문제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귀가시간을 지키고,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는 등 참여자들은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

“이는 동생이 차를 훔쳤어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차 안에 허스키 개도 있었는데 살 사람 구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안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되니까 개도 훔친 거고 차도 훔친 거였어요. 큰일 날 뻔 했어요. 그 애는 경찰서 가고 구치소에 있어요.” (배정남)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늦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침에 거짓말 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몇 시까지 오겠습니까 하면 딱 맞춰서 오고요 그랬어요.” (석환민)

②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

참여자들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비행극복을 위한 행동을 시도하면서부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고민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관계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무책임한 행동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였다.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데, 저는 그 동안 얻은 게 없잖아요, 계속 시간만 허비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책임감 있게 살고 싶

어요.” (김영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살면 정말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할 것이 없더라고요. 진짜 거지도 많은데 나도 그런 꼴 나겠다 생각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강민성)

③ 미래를 위한 준비행동 실천

참여자들은 비행극복을 위한 노력을 미래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지금의 상태로는 사회에 나가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고등학교를 마칠 준비를 하였다.

“지금 자퇴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예요 그냥 다른 애들, 1학년이랑 다니는 것도 쪽 팔리긴 한데요. 그래도 다시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해보려구요.” (조민정)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걸 아닌 거 같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따야지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요새는 대학교 나와도요 길거리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려구요.” (석환민)

3. 선택코딩

본 연구의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핵심범주는 ‘상호 노력을 통한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연구의 중심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써,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Strauss & Cobin, 1998).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은 핵심범주인 ‘상호 노력을 통한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와 친밀함과 신뢰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냥 부모가 좋고’, ‘부모는 고마운 존재’이며, ‘서로의 입장이 되어 이해해 주는’ 모습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 노력을 통한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 과정은 참여자와 부모의 노력 모두를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관계 변화를 통해 스스로 비

행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미래를 위해 정진하게 됨으로써 탈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V. 논 의

본 연구는 탈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비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탈비행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에서 출발함을 시사한다. 지각변화의 속성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행동을 의미 있게 지각하게 된 것은 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슷한 비행에 저질렀지만 비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반대로 탈비행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차이는 초기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부모와의 애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렸을 때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비행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반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의 경우 비행에 빠졌다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안전 기지로서 애착이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경험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유연한 적응력을 보여(박정녀, 최해림, 2005), 탈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상황적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적 조건은 청소년들에게 부모에 대한 지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구치소나 감별소(소년분류심사원)와 같은 법적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의존 욕구가 활성화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보여준 눈물과 사과하는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걱정해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로써 지각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자녀관계 변화의 계기는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관심과 지원은 무조건적 허용이 아닌 적절한 지원과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통제는 안전하고 구조화된 가족 환경 안에서 이루어야 한

다. Barnes & Farrell(1992)은 부모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모의 지지(support), 부모의 통제(control)와 관련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지지와 관심, 지원을 안전하고 적절히 통제된 구조화된 가족 환경 아래서 제공할 때 부모-자녀관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경계가 분명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에게 가족 및 부모를 안전하고 구조화된 환경으로 지각하게 만들어 준다.

넷째, 부모가 청소년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부모와 영화를 보거나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모와 친밀감을 잘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수용되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아들 혹은 딸로서 부모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목욕탕을 같이 간 시간을 매우 의미 있게 지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목욕탕에 같이 간다는 것은 숨길 것 없는 사이라는 의미의 상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함으로써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을 수용하고 있음을 느낌으로써 서로에 대해 친밀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이는 더 이상 문제 행동을 하게 되면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를 가게 된다는 의미로 다가와,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나 뒤처짐에 대한 조바심 등은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다든지 취업이나 복학을 준비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다.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부모-자녀관계는 변화를 위해 상호 노력할 때 그 질이 향상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하면 할수록 변화 속도가 빠르고, 상호신뢰가 깊어지며,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자녀관계에서 상호 친밀감과 신뢰감 경험은 청소년들의 탈비행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관계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꾸준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참여자의 비행극복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

였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 특히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챙기며 참여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참여자들의 탈비행에 대한 결심은 부모와의 신뢰로운 관계를 완전히 형성한 이후라기보다 관계 변화의 초기부터 나타났다. 반면, 탈비행 결심에서 탈비행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 신뢰 형성,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부모-자녀관계 변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며, 참여자들의 탈비행 과정 속에서 함께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점을 상담 장면과 관련지어 부모-자녀관계 변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상담자는 부모상담 시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부모에게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변화와 갈등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변화와 갈등은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둘째, 상담자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법적 제재를 받을 때의 두려움, 불안, 부모에 대한 의존 욕구 등을 부모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녀의 비행으로 관계가 악화가 되어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수용할 것을 상담자는 교육하고, 부모가 사소한 일에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주시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담자는 청소년들의 탈비행을 위해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부모에게 한때의 실수로 비행의 길로 접어든 자녀를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행에서 벗어나도록 관심과 지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교육할 수 있다. 넷째, 상담자는 부모-자녀 간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비행청소년과 부모가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부모가 자녀에게 꾸준한 지지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담자는 비행 청소년과의 상담 시 청소년들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비행 청소년들은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이러한 체험을 실천할 수 있다. 상담자의 수용과 이해는 청소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며, 부모로부터도 수용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하여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상담자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진로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삶

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자각하지 못하고, 현재 문제 행동들이 미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자각하도록 조력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U시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만 구성되었으며, 13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1명의 여자 청소년을 제외하고 모두 남학생으로 이루어져 제한된 연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탈비행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변화 과정에 대한 탐색으로써, 부모-자녀관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연구 참여자로 넣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탈비행을 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회고적 자료(retrospective data)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비행 정의에 대한 제한점이다. 탈비행 정의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석기·백옥현(2006).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구조적 분석. 청소년 복지연구, 제8권 제2호, pp.49-68.
- 김수진(2001).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일·이상주·권기형(2004). 부모 양육태도와 귀인성향 및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pp.177-201.
- 박정녀·최해림(2005).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1호, pp.249-264.
- 박한샘·오익수(1999). 탈비행화과정 탐색에 대한 현장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6권, pp.60-92.
- 손병덕·황혜원(2006). 보호소년들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대한 지각이 비행과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1호, pp.31-54.
- 손순용(2008).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현숙(2003). 적응유연성 연구의 전망: 개념 및 방법론적 문제와 학교-기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교육학연구, 제41권 제2호, pp.431-456.
- 안명희·최해림(2004). 청소년의 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4호, pp.687-703.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제38권 제3호, pp.81-106.
- 유성경·오익수·안희정·이소래(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70권,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선아·안귀여루·박영숙(2008).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여자 대학생의 방어기제와 대처전략 특성,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13권 제4호, pp.961-975.
- 이순형·이옥경·김지현(2005).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 연구: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1호, pp.99-111.

- 이재규(2002). 청소년 탈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지각, 대처행동, 부모-청소년 상호작용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nes, G. M., & Farrell, M. F.(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4 No. 4, pp.763-776.
- Born, M., Chevalier, V., & Humbelt, I.(1997). Resilience, Desistance and Delinquent career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0 No. 6, pp.679-694.
- Bottoms, A., Shapland, J., Costello, A., Holmes, D., & Muir, G.(2004). Towards desistance: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an empirical study. *The Howard Journal*, Vol. 43 No. 4, pp.368-389.
- Branstetter, S. A.(2005). *Parent-Adolescent attachment, relationship qualities and monitoring*. The influence on substance use and consequenc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Brennan, P. A., Hall, J., Bor, W., Najman, J. M., Williams, G.(2003). Integration biological and social process in relation to early-onset persistent aggression in boys and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9 No. 2, pp.309-323.
- Byrne, C. F., & Trew, K.(2008). Pathways through crime: The development of crime and desistance in the accounts of men and woman offenders. *The Howard Journal*, Vol. 47 No. 3, pp.238-258.
- Conner, K. M., Davidson, J. R.(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pp.76-82.
- Hamill, S. K.(2003). Resilience and self-efficacy: The importance of efficacy beliefs and coping mechanism in resilient adolescents. *Colgate University Journal of the Sciences*, Vol. 35, pp.115-146.
- Lollis, S., & Kuczynski, L.(1997). Beyond one hand clapping: Seeing bidirectionality in parent-child rel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Vol. 14 No. 4, pp.441-461.

- Luthar, S., Becker, B.(2002). Privileged but pressured? A study of affluent youth, *Child Development, Vol. 73 No. 5*, pp.1593-1610.
- Martsch, M.(2005). A comparison of two group interventions for adolescent aggression: High process versus low proces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 15 No. 1*, pp.8-18.
- McGue, M., Elkins, I., Walden, B., Iacono, W. G.(2005). Perception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1*, pp.971-984.
- Muris, P., Meesters, C., Morren, M., & Moorman, L.(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 57*, pp.257-264.
- Ong, A. D., Phinney, J. S., Dennis, J.(2006). Competence under challenge: Exploring the protectiv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and ethnic identity in Latino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9*, pp. 961-979.
- Schinke, S., Noia, J. D., Schwinn, T., Cole, K.(2006). Drug abus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black urban adolescent girls: A group-randomized trial of computer-delivered mother-daughter intervention.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Vol. 20 No. 4*, pp.496-500.
- Smokowski, P. R., Mann, E. A., Reynolds, A. J., & Fraser, M. W.(2004). Childhoo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late adolescent adjustment in inner city minority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26*, pp.63-91.
- Strauss, A., & Corbin, J.(2001). 근거이론의 이해[*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지, 신경림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원전은 1990년에 출판).
- Strauss, A., & Corbin, J.(2001). 근거이론의 단계[*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원전은 1998년에 출판).
- Schreiber, R. S., Stern, P. N.(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신경림, 김미영 역). 서울: 현문사(원전은 2001년에 출판).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Adolescents who have Desisted from Delinquency

Park, Hyun-Jin* · Kim, Do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hanges observed in the process of desisting from delinquency by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events that cause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hange in the desistance process enabled the experience of a new relationship to emerge, one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generated new emotions, which served as the momentum for changes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Secondly,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showed that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could see changes in their relationships by forming intimacy and trust through their mutual endeavors. Thirdly, 'parents' concerns about their adolescent's everyday life' and 'parents' support' were found to be the conditions that affect the overall process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hanges significantly. Fourthly, one of the results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hange was the participants' practical transition toward desistance. Fifthl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change process showed that the core category was the 'formation of intimacy and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Chung-Ang University

trust through mutual endeavor.' Th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process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s perceived by the desisted adolescents was that the quality of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were improved when the relationship was more interactive. As both parents and their adolescent tried to overcome the delinquency together, the change was faster, the mutual trust became deeper, and the communication became more open. Parents' concern and support for their adolescent's everyday life were needed to maintain the changes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

Key Words : adolescents desisted from delinquency, change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grounded theory approach

투고일 : 12월 7일, 심사일 : 1월 19일, 심사완료일 : 2월 9일

